

실상산문 진면목 드러나다

선방 추정 건물지-국내 최대 목탑지 '발견'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개산된 실상산문(實相山門·828년)의 진면목이 드러날 전망이다.

96년부터 전북 남원 실상사(주지도법) 발굴을 도맡아 온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은 실상산문의 초창기 선방으로 보이는 건물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목탑지를 발견,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사단에 따르면 실상산문의 선방으로 추정되는 곳은 약사전 뒤편에서 발견된 건물지이다. 면적이 무려 216평인 이 건물지는 남북 7칸 동서 5칸의 남북정방형으로, 온돌시설을 갖춘 단일 건물지 가운데 공굴을 빼고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한다.

구들을 놓기 위해 양쪽에 돌로 쌓

아 놓은 고래가 동, 남, 북쪽과 중앙에 놓여 있는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 건물지의 유구층에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막새편이 출토되고 있다.

조사단 김미란 연구원은 "사찰에서 큰 규모의 온돌 건물은 대부분 선방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스님들의 지적"이라며 "유구층에서 출토된 유물들도 이 같은 추정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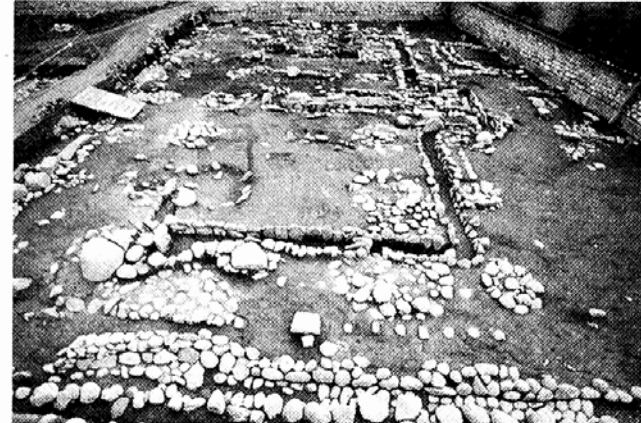
대표적인 선종계 사찰로 알려진 실상사이지만 현재 경내에 선방이 없어, 절에서 2km가량 떨어진 백강마을 선방으로 이용해 왔다. 따라서 이 건물지가 초기 선방으로 확인되면, 한

국 선불교의 근본 수행처인 실상산문의 선방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단은 가로 세로 똑같이 23.2m인 목탑지를 발견했다. 정방형

7칸인 이 목탑지는 지금까지 국내 최대로 알려진 황룡사지 목탑의 22.97~22.27m 보다 가로 0.11m, 세로 0.93m가 크다. 면적도 127평으로 황룡사지 목탑의 108.2평보다 18.8평이 넓어 국내 최대 규모의 목탑지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이곳 목탑에 관한 문헌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중심 기



실상산문 초기 선방으로 추정되고 있는 '제8 건물지' 발굴 현장. 약사전 북동쪽에 위치한 이 곳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조각들이 출토되고 있다.

둥을 받치는 삼초석이 놓인 점과 초석 배치 형태 등으로 미루어 목탑지인 것은 확실하며 기단토 등을 분석하면 축조 연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동현(연세대 객원교수·고건축) 씨는 "선종계 사찰에 대형 목탑이 들어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실상사가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규모'의 목탑지라는 데만 관심의 초점을 모으기보다는 이 곳에서 발굴된 유물과 관련 문헌을 토대로 정확한 건축 시기와 역사적 배경을 찾을 때, 실상사 목탑과 얽혀있는 당대 불교문화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는 보다 중요한 불교문화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목탑은 사리를 봉안할 목적으로 세운 목조의 중층누각 건물로 국내에서는 전부 소실되고 터만 발견되고 있는데, 백제의 부여 군수리사지와 금강사지, 익산 미륵사지가 있으며 신라의 목탑지로는 황룡사지 등이 있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은 이번 발굴을 토대로(실상사 유적 조사 보고서)(가칭)를 12월 중 발간하는 한편 오는 2천년까지 실상사 초기 가람을 복원기 위한 조사·발굴을 계속할 계획이다.

실상사=오중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 '한국의 석탑' 사이트.

문화재 관련사이트 150여개 클릭! 궁금증 푸세요

우리나라 각종 문화재의 종류·양식·역사적 가치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채롭게 개설되고 있다.

대부분 불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화재를 주제로 소개하고 있는 이들 홈페이지는 국보·보물·무형문화재 등의 사진·동영상·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있다. 150여개 사이트가 개설돼 있는 문화재 관련 홈페이지는 문화재기행·사찰 순례 등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미리 관련 자료를 검색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역사공부에도 유익하다.

문화재관리국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일반인을 위한 문화재 및 역사교육자료안내·전문가마당·문화재탐방 등으로 꾸며졌으며, 우리나라의 성보문화재 지도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는 문화재를 불상·불화·탑 등 각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다.

이밖에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특정 문화재를 집중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도 속속 개설되고 있다. 문화재 관련 주요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문화재관리국=www.ocp.go.kr/
-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 △한국의 석탑=http://kitel.co.kr/~sunghoon/pagoda/
- △팔만대장경=korea.insigh.co.kr/korean/blocks
- △알아버린 유산을 찾아서=my.netian.com/ryoz/main.htm
- △한국의 사찰 탐방=temple.buddhism.or.kr/kyungki.html
- △한국미술사=galaxy.chamneli.net/kwmooks/
- △달마넷=www.dharmanet.net/login.asp
- △부다피아=www.buddhapia.com

미륵사지석탑 해체 2010년 복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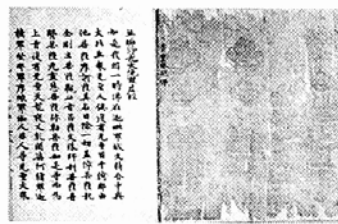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사진)이 내년부터 해체·복원된다.

문화재청과 전북도는 그 동안 '현상태 보수'와 '전면 해체·복원'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미륵사지 탑을 전면 해체·복원키로 하고, 연내 해체를 위한 가설 덧집과 보관창고 설계를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정밀 실측을 통해 탑 도면을 작성하고, 사진촬영과 기록 등을 마친 뒤 빠르면 내년 하반기 해체에 들어간다. 복원까지는 10년 안팎 동안 80여여명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탑의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기 위해, 현재 남아 있는 6층의 모습으로 복원할지, 원형인 9층으로 할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륵사지 석탑 해체복원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제 무왕 때(600~641) 축조돼 현존 국내 최고·최대로 확인된 이 탑은 1915년 콘크리트로 둘러 현재의 형태를 유지해왔으나 97~98년 정밀진단결과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석재에 균열조짐이 나타나는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사경변상도.

성암본 사경변상도 최초 필사경전 만나

서예가 한상봉씨 이른제기 서체등 분석 '8세기초 아니다'

성형하던 당 시대의 해서체이며 변상도의 글씨체와 사경의 글씨체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상도에 적힌 '세존영산설(世尊靈山說)'의 영산은 부처님이(법화경)을 설한 중인도 마갈타국을 가리키며, 사경에 나오는 '가비라성(迦毘羅城)'은 부처님이 태어난 곳으로 그림과 본문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질과 보존상태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성암본 사경변상도가 신라시대 봉안된 것이라면 오랜 세월동안 그렇게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원로 서지학자인 현해봉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지난 70년대에 성암고서박물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고증을 부탁했었을 때 비슷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다"며 한씨의 주장에 동의했다.

문화소식

통도사 성보박물관 우수박물관상 수상

통도사성보박물관이 '99 문화기반시설 관리 운영 평가'에서 우수박물관으로 선정돼 1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우수박물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문화관광부가 국립·

사람 박물관에 대한 문화기반시설의 경쟁력, 자발적 개혁 그리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에 따라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우수 문화기반시설 인센티브제에 따라 ▲자료 및 유물 구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제작 등에 대해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러스트 전통문양

한국의 전통문양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28일부터 '이일규의 한국

의 이미지'展을 갖고, 문화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문양 40여점을 일러스트로 재현한다. 이 전시회는 내년 1월 4일까지 계속되며, 전시 기간동안 '우리 것'이라는 주제로 작가 이일규(대구보건대 사업디자인과) 교수의 강연도 마련된다. (0561)774-1950

'동승' 출연자 공개모집

영화 '동승'을 촬영하고 있는 (주) 스펙트럼필름은 '동승'에 출연할 108명의 새싹남자와 여성분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9~11세 남·여

아동과 30~50세 여성분자이며, 28일 신촌 봉림사에서 촬영하는 '영산제' 장면을 함께 찍는다. 아동들은 이날 식별·출연한다. (02)929-1070

'티벳의 미술전' 연장

티벳 불교미술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본격 소개하여 화제를 모았던 화정박물관의 특별기획전 '티벳의 미술'展이 12일까지 연장된다. 이 전시회는 만다라, 여래, 수호존, 분노존 등의 불화와 불상, 불탑, 경전등 티벳 미술품 1,30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02)798-1954

고승·중견작가 서화전

한국고승 및 중견작가 서화전이 8일부터 14일까지 백상기념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서화전에는 석주·송월·인법·수안·동승 스님을 비롯 서예가 윤길중·신규호 씨, 화가 박원호·김종국 등이 서예와 수묵화 197점을 선보인다. 특히 석주(칠보사 조실)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일관한 경봉·해암 스님 유작을 비롯 작품 1백여점을 회사했다. (02)723-7622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선(禪) 302

여시아문은 '틀은 바. 진의 미국등도 없이 전해왔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권자동 110-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어떻게' 도업(道業)을 이룰 것인가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공덕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시종일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도업은 이루기 어려운데,
 처음 출가했을 때는 도심(道心)이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만다.
 그래서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서천(西天)에 있으며,
 출가 3년에는 부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이 오래가지 않으면 도업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슬 같은 도심으로 어떻게 생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 본문 중에서

허운 스님은 누구인가?

허운(虛雲)스님은 1840년에 중국의 복건(福建) 천주(泉州)에서 태어나 1959년 세수 120세 승탑 101세로 운거산에서 입적하였다. 청말(清末) 이후 쇠퇴한 중국 불교를 다시 일으킨 고승으로 추앙받는 허운 스님은, 19세에 출가하여 30대부터 여러 곳을 두루 돌며 참학하다가

43세 때 3보 1배(三歩一拜)로 오대산을 참배한 뒤,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였고, 56세 때 찾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에 문득 깨웠다 한다. 특히 스님은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의 억압하에서도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의 파괴를 막았으며, 수십 개의 가람을 복원하였다.



허운 스님 지음 / 대성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 값 6,000원